

'89신진학자통일연구

# 北韓 歷史學界의 近代史 認識

1989



研究責任者: 도진순 (한양大)

K.W

한양대  
북한역사학  
김민영인제

國土統一院



##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統一 및 北韓 問題 新進學者 育成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研究結果 報告書 입니다.

本 研究는 北韓의 近代史 研究중 중요한 主題인 近代史 時期區分, 資本主義的 관계의 發生 發展, 부르조아 民族運動의 發生 發展, 甲午農民戰爭, 民族부르조아지와 民族改良主義 문제등을 分析 하였습니다.

이 冊字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參考資料로 적극 活用되어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12.

調 查 研 究 室



## 要 約 文

지난 10월말 통일원은 경희대 사학과와 북한 유적지 답사신청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남북교류 일반을 진전시키는 역사적인 단서일 뿐만 아니라, 역사학의 분단적 정체를 지양하는 구체적인 첫 걸음이 되는 획기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분단 역사학의 지양을 위한 남북 역사학의 교류와 토론을 예비하면서, 역사 연구자들에게는 북한의 역사학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정리가 매우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박두하는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 북한의 근대사 이해중 뚜렷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5가지 주제를 분석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5가지 주제는 1)근대사 시기구분 2)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발전, 3)부르쥬아 민족운동의 발생 발전 4)갑오농민전쟁, 5)민족부르쥬아지와 민족개량주의 등이다. 이러한 주제는 현재 우리학계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될 여지가 있는 논쟁적인 문제들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소개 및 분석은 북한학계의 연구성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비판 뿐만아니라, 우리 학계의 근대사 연구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북한의 역사책들이 적지않게 소개되어, 북한의 근대사 인식을 대강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소개된 책들은 대부분 통사류의 개설이어서 북한 역사학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의견의 제출과 토론 등 그 과정을 알 수 없어 피상적인 일면성을 극복하기 힘들다. 논쟁 주제를 통한 근대사 인식은 통사류의 피상적 인식을 벗어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근대사 이해의 심층을 해쳐 본다는 취지로 해서, 이 글에서는 통사류 이외의 '학술논문'들을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광범위하게 참고하였다. 학술논문은 주로 <<역사과학>>에 실려 있는데, <<역사과학>>은 통일원 자료실에서 5, 60년 대부분은 마이크로필름으로, 7, 80년대분은 원본을 이용하였다. 통일원에 걸락되어 있는 것은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등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정리한 북한 역사학계의 근대사 쟁점 5가지는 실상 우리의 남한학계에도 예각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는 우리 학계와의 개괄적 연관성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시대구분 문제는 우리 학계에서 70년대 이후 방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의 새로운 문제제기와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여, 이제는 시대적 차원의 개념화작업과 아울러 시기구분 논의의 재개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기구분의 확정 뿐만 아니라 근대의 사회성격과 계급투쟁을 계통화하는데 관건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다음,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학계에서는 두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발생을 “고전적, 아래로부터의 코스”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비난하고 우리나라 봉건말기에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두가지 견해는 모두 “위로부터의 자본주의적 관계”를 주류적 경향으로 보는 북한 학계의 통설적인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

감신정변과 부르쥬아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그것을 “위로부터의 개혁”임을 같이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부르쥬아 민족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사실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평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농민전쟁에 대해서는 남북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전쟁의 총괄적 성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학계의 비중있는 견해는 “아래로부터의 부르쥬아 운동”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과 “반침략 반봉건운동일 뿐만 아니라 반자본주의적 민족운동”으로 평가하는 조류로 나뉘지며, 북한의 역사학계는 농민전쟁이 부르쥬아 민족운동을 추동한 기본동력이지만, 그 자체의 기본성격은 “반침략 반봉건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미묘한 것이지만, 결코 사소한 차이는 아니다. 농민전쟁은 그 총괄적 성격규정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남북 학계 사이에서 토론될 수 있는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민족부르쥬아지와 민족개량주의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에서 민족부르쥬아지의 역할과 이들과의 동맹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과 노동계급의 헤게모니와 이들의 고립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 남북의 근대사 인식에 대해 그 차이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그러나 북한학계의 근대사연구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우리 학계에서도 매우 예각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의 서로 다른 견해들을 극복하는 공통의 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근대사 연구에서 남과 북의 구체적 견해 차이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곧 남북 역사학계의 상호토론과 비판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 북한 역사학계의 근대사 인식

도진순(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 목 차

머 리 말.....	3
1. 북한 역사학의 흐름과 저작 .....	5
2. 근대사의 시기구분 .....	10
3.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발전 .....	14
4. 부르쥬아 민족운동의 발생 발전 .....	18
5. 갑오농민전쟁 .....	23
6. 민족부르쥬아와 민족개량주의 .....	26
맺 음 말 .....	30



## 머 리 말

80년대말 최근 南北관계의 새로운 모색은 90년대 본격적인 交流와 統一을 예비하는 전주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의 南北관계는 우여곡절을 동반하면서도 보다 놀라운 속도로 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학계에서도 분단 안주적인 구습을 벗어나, 박두하는 시대적 변화와 숙원적 과제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사회에서도 南北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관련하여, 北韓社會의 모습과 저작들이 여러 형태와 경로로 소개되었다. 그간의 분단 현실을 상기한다면 6공화국이후의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歷史學 분야를 포함하여 북한 저작의 발간과 소개 또는 그 借用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상업주의와 결합으로 인한 혼란된 소개와 출간, 그에 따른 인식의 혼란, 인식이 정비되지 않은 차원에서 입장표명에 대한 강박, 그로 인한 표피적 공방 등이 그것이며, 이는 주체성과 창조성의 결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紹介와 整理의 체계를 세우는 한편, 논점과 주요내용을 분석적으로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은 보다 높은 안목에서 보다 광범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간 歷史學 분야도 다른 부분 못지 않게 저작들이 소개되어, 北韓 역사인식의 체계와 내용을 대충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책들의 소개는 결론적 역사인식만을 정리한 “통사류”가 중심이어서, 피상적 일면성을 극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90년대 南北 歷史學界의 본격적인 교류와 상호비평을 예비하면서, 北韓 歷史學의 피상적 접근을 극복하고자 쓰여졌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기서는 北韓의 근대사 연구중 뚜렷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5가지 주제를 분석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5가지 주제란 1) 근대사 시기구분, 2)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발전, 3) 부르주아 民族運動의 발생 발전, 4) 갑오농민전쟁, 5) 민족부르주아지와 민족개량주의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학계에서도 논쟁이 되었거나 앞으로 될 여지가 농후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리는 北韓 歷史學界의 분석적 이해와 심층적 비평 뿐만 아니라, 우리의

近代史像을 수립하는데도 필수불가결의 문제라 생각된다.

歷史學 그 자체가 현실과 이데올로기에서 유리될 수 없는 본성을 지니며, 근 현대사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5가지 문제들은 南北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제약되면서도 그 첨단적인 지배에서는 벗어나 있어 어느 정도 객관적안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5가지 주제를 비판 반비판의 논쟁적 구도로 엮고, 정확한 내용을 풍부하게 헤집어 내기 위하여, 《歷史科學》을 비롯한 ‘학술지’의 ‘論文’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주제가 다섯가지인데서오는 논의의 산만성과 병렬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5가지 논점의 배경이 되는 北韓 歷史學계의 전반적 동향을 살펴보자.

## 1. 北韓 歷史學界의 흐름과 著作

北韓에서 歷史學界의 동향은 北韓 현대사와 그 사상사적 흐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는 北韓의 사상사 및 史學史의 흐름과 歷史關係 저작을 편의상 크게 3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sup>1)</sup>

### 1) 解放~韓國戰爭 시기

이 시기 북한사는 일반적으로 47년 2월의 人民委員會의 창설을 전후하여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단계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기로 나누지만, 思想史의 맥락에서는 거의 동일한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노동당은 金日成계열을 핵심으로 하면서도 국내파, 연안파, 쏘련파 등 다양한 그룹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서는 운동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상 이념적 차이가 많았으나, 당시 北韓의 일반적 과제인 反帝 反封建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공동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당내의 사상 이념적차이는 적대적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歷史學界는 대부분 사적 유물론을 歷史研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입각한 우리나라 歷史의 統一된 모습과 체계는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당시 김일성과 그의 항일무장투쟁 세력이 建國 建黨 建軍사업을 주도하였던데 비해서, 歷史研究를 주도하던 사람은 최창익 이청원 백남운 등 김일성계열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좌익인테리들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歷史學界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저작은 최창익 백남운등이 지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조선력사편찬위원회가 공동집필하여 1949년에 출간한《조선민족해방 투쟁사》였다. 이 책은 北韓체제가 사상적으로 統一化되기 이전의 역사책이란 점에서, 그후 종파주의적 歷史書로 비판되었던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sup>2)</sup>

1) 北韓의 사상사 내지는 사학자를 크게 3시기로 구분한 것은 좌담, 北韓에서는 우리 歷史를 어떻게 보는가, 《역사비평》, 88년 겨울호, 참고.

2) 이 책은 1952년 日本의 삼일서방에서 번역 출간된 적이 있다.

## 2) 50년대 후반~60년대 후반

이 시기는 편의상 50년대와 60년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50년대는 韓國戰爭의 수행과 전후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둘러싸고 심각한 사상투쟁과 숙청사업이 진행되었던 격동의 시기이며, 60년대는 50년대의 反宗派鬪爭의 결산을 바탕으로 하여 김일성주도의 체제를 확립해나가던 시기이다.

1950년대 전반 韓國戰爭이 예상외로 진전되어 가자, 아직 굳건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노동당은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고 당내의 분열은 적대적인 대립으로 심화되었다. 韓國戰爭이 진지방어전으로 이행하고 난 후 52년 12월 전원회의 이후, 이른바 후방강화의 요체인 ‘당의 조직 사상적 강화사업’과 결합하여 박헌영을 위시한 南勞黨계열의 핵심을 간첩행위와 내란혐의로 숙청하였다.

전쟁종결 후 김일성은 전후복구사업의 經濟建設 노선으로 ‘중공업 우선 경공업과 農業의 동시적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창익 박창옥등은 ‘기계에서 쌀이 나오는가 옷이 나오는가’라고 비판하면서 소비재공업의 우선을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경제노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외국의 모델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조주의 형식주의에 그 사상적 뿌리가 있다고 보고,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 퇴치와 주체확립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상사업은 56년 4월의 노동당 3차당대회에서 전당적으로 천명하였다.<sup>3)</sup>

56년 3차당대회를 전후한 이러한 노동당의 대립과 갈등은 그해 2월 朝鮮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후르시췌프의 등장과 스탈린 비판, 평화공존노선의 제기와 연결되면서 더욱 확대 되었다. 56년 8월 연안파의 최창익 朝鮮파의 박창옥 등이 김일성 주도의 당정책을 전반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이른바 ‘8월종파사건’을 야기하였다. 8월종파사건을 전후하여 최창익등이 당정책을 비판한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정책적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당과 인민정권의 위상, 당내 민주주의 등 사회주의 이행기 전반에 관계되는 것이었다.

3) 55년 12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3차 당대회에 관해서는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1집, 국토통일원, 참고.

8월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주도의 노동당은 다소의 우여곡절에서도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 등을 출당처분하는 한편, 이른바 “반종파투쟁”을 전당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5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반혁명분자들과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고 난 이후, 반종파투쟁은 “몇몇 일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군중적 전인민적 사업”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반종파투쟁은 정치적 숙청과 더불어 교조주의와 형식주의, 수정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개인영웅주의와 개인이기주의, 지방주의와 가족주의에 대한 사상투쟁과 결합되어 추진 되었다.

56년 8월종파사건 이후 반종파투쟁은 심각한 思想鬭爭과 肅清事業을 전당적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57년 후반기들어 ‘전인민적 확산’은 歷史學界의 전반적 긴장과 전환을 초래하였다. 8월 종파사건의 영수인 최창익은 해방직후 北韓 歷史學界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歷史學界와 종파사건의 관계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 심각한 것이었다.<sup>4)</sup>

歷史學界의 이러한 분위기는 58년 《력사과학》, 1호에 실린 김석형의 권두언이 잘 보여주고 있다.

종파사상이 골수에까지 사무쳐 있었던 최창익은 그 정체를 교묘하게 가장하면서 일찍부터 해방후 그 職位를 이용하여 소위 “리론가”로, “력사가”로 자처하였으며 民族解放 鬭爭史 研究에서도 교조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독소를 풍겨 놓았다. 이는 물론 그가 당을 반대하는 본격적인 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사상적 준비였던 것이며 동시에 불순한 소위 “력사가”, “리론가”들을 규합하기 위한 추악한 방법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리청원, 김정도, 허갑, 기타 몇몇 소위 “력사가”, “리론가”들은 최창익을 추종하면서 최창익이가 일찌기 1949년에 출판된《朝鮮 民族 解放 투쟁사》에서와 또 이 책의 출판 이전 이후에 있어서 풍기고 있던 수정주의적 견해들과 교조들을 음으로 양으로 옹호 하면서 소위 “종파유익설” 전파시켰으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 현대사 발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교묘하게 엠엘 종파식으로 엠엘파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비속화하였다.

4) 반종파투쟁과 관련한 歷史學界의 肅清과 論爭에 대해서는 도진수 <北韓의 종파문제와 1920년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인식>, 《역사비평》, 89년 가을호, 참고.

歷史學계의 반종파투쟁은 당시《歷史科學》《근로자》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1958년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 대한 대체물인 것이다.<sup>5)</sup>

北韓은 당시 반종파투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과 이나영의 정리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들도 비판에서 몇가지 좌경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게 된다. 이처럼 종파주의의 오류와 반종파투쟁에서 좌경적 오류를 시정하면서 北韓 歷史學계의 반종파투쟁은 결산되는데,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北韓 최초의 통사인 《朝鮮通史》이다. 《朝鮮通史》는 上 下권이 56편에 동시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하권은 종파주의의 오류와 반종파투쟁에서 좌경적 오류를 시정하는 문제로 해서 58년에 가서야 간행되었다.<sup>6)</sup>

50년대 후반의 反宗派鬪爭과 그 決算을 토대로 하여, 61년 4차당대회에 이르면 北韓의 노동당은 김일성주도로 확고하게 꾸러지게 되며, 지도이념도 맑스 레닌주의라는 일반적인 원칙과 더불어 ‘抗日武裝鬪爭의 혁명전통’이라는 歷史的 기준이 결합하여 제시되었다. 이러한 反宗派鬪爭의 決算과 이른바 김일성의 혁명전통에 입각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정리한 것이 61년 4차 당대회의 기념저작인 《조선근대혁명운동사》이다<sup>7)</sup> 이러한 60년대 초반의 이념적 정비로 해서 북한의 역사학계는 62년《조선통사》를 일차로 개정하여 우리역사 전반의 체계와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 3) 60년대 후반~현재

北韓에서는 60년대부처 唯一思想體系로서 主體思想이 전면화되어 가는데, 편의상 67년대 이후, 74년 이후, 80년대의 세단계로 볼 수 있다.

60년대 중반이후 北韓은 이른바 美國의 ‘대한반도 공세전략’에 대응하면서 사회주의 전면건설을 추진하여야 했다. 北韓은 美國의 공세에 대응하여 國防建設을 經濟建設과 병행하는 ‘병진노선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당의 조직

5) 이나영, 《조선민족 해방투쟁사》, 서문, 1958(조선문제연구소 역, 신일본출판사, 1960)

6) 《조선통사》는 오월출판사에서 1989년 출간되었다.

7) 《조선근대혁명운동사》, 한마당, 1989.



사상적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상사업은 66년의 대표자대회에서도 표방되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기된 것은 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였다. 전원회의는 美國의 사상 문화적 공세에 따라 방안에 “수정주의적인 사상조류”가 침습해 들어오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 해결책으로 부르조아 분자 및 수정주의 분자를 숙청하고 “主體思想”을 당의 유일사상체제로 확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사상사업과 관련된 숙청작업은 이미 66년 당대표자대회에서, 50년대 후반 이후 思想事業을 지도해오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창만(金昌滿)의 실각으로 그 단초가 나타났다. 67년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단행된 肅清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겸 상무위원인 박금철(朴金喆: 서열 4위), 당 정치위원 및 대남공작책임 이효순(李孝諄: 서열 5위), 문예과학연구담당 부수상 고희(高赫),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겸 비서인 김도만(金導萬), 문예과학교육부장 허석진(許錫眞)등을 포함하여 사상 이데올로기 사업의 거의 전분야에 걸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北韓의 노동당은 이처럼 67년의 전원회의를 통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을 사회주의의 전면건설과 완전승리를 위한 합법칙적인 과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당의 방침은 같은 해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공화국정부 10대 정강”으로 체계화되어 北韓의 총체적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되며, 이 때부터 北韓에서는 김일성의 혁명활동과 革命思想에 대한 연구와 정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당의 主體思想化 사업은 70년대 제5차 당대회, 72년 4월의 김일성 60회 생일, 72년 12월의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다.

전 당의 主體思想化 사업은 74년 김정일의 주도에 의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김정일은 74년 2월10일 전국 당 선전일군 강습회에서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차원을 넘어서 “은 社會의 主體思想化”를 “조선노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은사회의 주체사상화”를 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총적 임무”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北韓은 82년 김일성의 70회생일 기념사업으로 北韓은

8) 이사건을 세칭 甲山派 숙청사건, 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총람》193~194참고.

《김일성 저작집》등 김일성의 문헌을 방대하게 체계화 하는 작업, 主體思想塔 건설 등 紀念 건축물 사업, 전국 각지의 김일성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또한 全國의 社會科學者와 이론선전 일군들을 모아 ‘전국주체사상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主體思想에 대하여〉라는 長文의 論文을 제출하여 主體思想을 체계화 하였다.<sup>9)</sup>

7, 80년대를 통한 主體思想의 유일사상화 및 전면적 체계화는 모든 社會科學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歷史研究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왔다. 1970년의 《력사사전》에서 시작하여, 1977년의 《조선전사》2차 개정판, 1979년의 《조선로동당략사》, 1982년의 《朝鮮戰史》1987년의 《朝鮮通史》3차 개정판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저작들은 主體史觀의 심화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sup>10)</sup>

## 2. 근대사의 시기구분

시기구분은 복합적인 현상으로 혼재되어 있는 歷史에대한 개념적 이해와 社會發展의 歷史的 단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歷史研究에서 지대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自國의 歷史와 외세의 규정력이 교차하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시기구분은 더욱 중요한의의를 지닌다.

北韓에서 근대사 시기구분론은 크게 2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57년에서 62년까지로 ‘근대사 시기구분 논쟁’이 진행되어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던 시기이고, 제2기는 6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로 주체사관이 전면화되면서 제1기의 합의가 다시 변화되는 시기이다.<sup>11)</sup>

제1기의 논쟁을 간단하게 개관하면, 朝鮮과 中國의 시기구분 논쟁을 배경으로 하여 57년 北韓에서는 歷史연구소의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과 각 大學에서 근대사 시기구분 문제가 토론되었고, 각 의견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기초토론과 의견제출을 토대로

9) 이 논문은 하수도의 《김일성사상비판》(1988, 백두)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10) 이들중 《력사사전》 《조선로동당역사》 《조선전사》의 일부는 국내에서도 영인 또는 출간되었다.

11) 북한의 근대사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음의 분석이 있다.

하여 제1회 토론회가 57년 5월 31일 역사연구소에서 열렸다.<sup>12)</sup>

제1회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1)시기구분의 기준, 2)근대사의 시점, 3)종점 3가지 문제였다. 토론은 1)시기구분의 기준을 계급투쟁으로 보는가 사회 경제적 변화로 보는가 2)시점을 1866년의 병인양요로 보는가 1876년의 개항으로 보는가 3)근대사의 종점을 1919년 3·1운동으로 보는가 1945년 8·15해방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가지 의견으로 대립하였다. 전자 즉 '1866~1919년 계급투쟁설'은 이나영이, 후자 즉 '1876~1945년 사회경제설'은 박린형이 대표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가지 의견은 토론이 종식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논쟁의 축이 되었다.

제1회토론회가 끝나고 난 후 장문선은 <조선근대사 시기구분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시기구분의 기준은 社會의 주요모순과 계급투쟁의 변화 발전에, 시점은 병인양요에, 종점은 8·15해방에 설정하였다.<sup>13)</sup> 즉 장문선의 의견은 시점은 이나영과, 종점은 박린형과 일치하며, 기준문제는 다소 절충적이면서도 이나영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이리하여 논쟁에서는 제1회토론회에서 설정된 두축에다, '1866~1945년 계급투쟁설'이란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1회 討論會의 두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과학원 歷史研究室은 논쟁을 확대 심화시킬 목적으로 60년 2.17~3.23 사이에 기준, 시점, 중간점, 종점의 4가지 문제에 대한 4가지 견해를 중심으로 하여, 5회의 討論會를 조직하고 그 발제문들을 <역사과학>60년 3호에 수록하였다. 歷史研究室은 4가지 의견이 일차 토론되고 공표된 기초에서, 6월 30일 또 다시 大衆討論會를 조직하였다.<sup>14)</sup>

이처럼 2차에 걸친 60년의 討論會는 4가지설을 중심으로 하여 논점을 심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討論에서 제기된 4가지 견해를

12) 학계소식, 조선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토론회, <과학원통보>, 57년 3호; 학계소식, 조선 근세사의 시기구분에 관한 토론회, <역사과학>, 57년 4호. 이하<과학원통보>는 <과>로, <경제연구>는 <경>으로, <역사과학>은 <력>으로 약칭한다.

13) 장문선, 조선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하여, <력>, 57년 6호.

14) 학계소식, 조선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토론회, <력>, 60년 2호; 討論, 조선 근대사의 시기구분에 대하여- 1)김사익 김희일, 2)최기환, 3)김명모, 4)박춘성 전석담- <력>, 60년 3호; 학계소식, 조선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討論會, <과>60년 4호.

제시한 이는 1)김사역 김희일, 2)최기환, 3)김맹모, 그리고 4)전석담 박춘성이었다. 기준문제에서 김사역 김희일은 사회경제적 변화 발전을, 전석담 박춘성 최기환 등은 계급투쟁을 채택하였고, 김맹모는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계급투쟁설을 지지하였다. 그의 시점, 중단단계, 중점에 대한 4가지설의 의견은 아래의 도표와 같다.

<60년 토론회의 4가지 의견 개요>

논자 항목	시 점	중 간 단 계	중 점
김사역 김희일	1876 개 항	1919 3.1운동	1919 해방
최기환	1866 병인양요	1894 갑오농민전쟁/1919 3.1운동	1945 해방
김맹모	1884 갑신정변	1919 3.1운동	1945 해방
전석담 박춘성	1866 병인양요	1894 갑오농민전쟁	1919 3.1운동

60년대부터 확대 심화되어 가던 논쟁은 61년말에 들어와 이제 집약 수습되어야 할 국면에 이르렀다. 이에 과학원 歷史研究室은 61년 12월 13일 討論의 ‘중간총화’를 위한 전국과학토론회를 조직하였다.<sup>15)</sup> 歷史研究은 討論의 중간총화를 위하여 시기구분의 방법론적 원칙을 선차적으로 해결하고 그후 시, 중점문제에 화력을 집중시키며, 마지막으로 근대사 내부의 단계를 설정하는 “순차적 방도”에 따라 討論을 심화시킬 것을 제기하였다.

討論의 상호침투 및 심화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총화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는 김희일이었다. 그는 社會 경제적 변화를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하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시점문제에서는 자신의 설을 수정하여 1866년 병인양요로 설정하는데 동의하였다.<sup>16)</sup> 이러한 討論의 상호침투와 심화일치는 시대구분 논쟁에서 전반적 총화의 단서를 마련하였다.

62년에 들어와 과학원은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기구분 문제에 관한 전반적 정리를

15) 학계소식, 조선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토론회, <과>62년 1호.

16) 김희일, 조선 근세사 시기구분 문제에 대하여, <력>62년 1호.

목표로 하는 최종적인 ‘토론총화’가 8월 20일과 9월 30일 이틀간 개최되었다.<sup>17)</sup> 여기서 北韓 歷史學界는 근대사의 시기구분에 관한 다음의 3가지에 대체로 합의하였다. 1) 시기구분의 기준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원칙으로 하며, 2)시점은 1866년의 병인양요, 종점은 1945년의 해방으로 설정하며, 3)근대사 내부의 시기구분은 3·1운동을 전후로 하여 부르주아 주도의 1기와 프롤레타리아트 주도의 2기로 나누며, 다시 1기의 4단계, 2기의 2단계로 나뉘어, 총 6단계의 소시기로 나뉜다. 이리하여 논쟁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學界消息, 朝鮮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學術 토론총화, 《력》, 62년 6호; 學界消息, 조선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學術 토론총화, 《과》, 62년 6호.

제1기의 시기구분 논쟁은 北韓의 다른 논쟁들보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論爭이었고, ‘問題提起-백가쟁명식의 의견제출-중간총화-총화’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討論에 제출된 의견은 다양하였으나, 중심적인 것은 ‘1876~1945년 사회경제설’, ‘1866~1945년 계급투쟁설’, ‘1866~1919년 계급투쟁설’ 등 3가지였다. 이러한 3가지 견해는 서로 착종하면서 基準問題에서는 사회경제설과 계급투쟁의 대립으로, 始點問題에서는 1866년 1876년의 대립으로, 終點問題에서는 1919년과 1945년으로 대립되었다. 討論의 결과 ‘1866~1945년 사회경제설’을 중심으로 합의되었다.

60년대에서 62년 이후는 통사류의 역사책이 거의 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62년 토론총회에서 합의된 시기구분론이 직접 반영된 역사책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논쟁 말기에 간행된 61년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 62년의 《조선통사》1차 개정된 하권에는 이미 討論의 주류적 의견의 주로 반영되어 있다.

제1기의 論爭을 통해서 北韓에서 근대사는 1866~1945년으로 체계화되었으나, 심층적인 부분에서는 다소의 절충과 모호함이 남아 있었다. 이로 해서 63년 이나영은 다시 ‘1866~1919년 계급투쟁설’을 제기하였으나, 이전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논쟁의 전면적 재개와 승화의 계기는 되지 못하였다.<sup>18)</sup> 이처럼 5년여에 걸친 근대사 시기구분 논쟁은 62년에 이르러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그것은 다소

17) 學界消息, 朝鮮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學術 토론총화, 《력》, 62년 6호; 學界消息, 조선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學術 토론총화, 《과》, 62년 6호.

불완전한 것이었다. 제1기의 討論과 63년의 問題提起가 남긴 과제는 그 자체의 발전과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主體思想의 전면적 체계화와 더불어 해결되었다. 그 결과 ‘인민대중의 自主性을 고양을 위한 투쟁’의 관점에서 근대사는 1860년대부터, 현대사는 1926년부터 설정하였다.<sup>18)</sup> 주체의 시기구분에서 명시적인 변화는 근대사의 종점과 현대사의 시점이 1945년에서 1926년으로 변한 것 뿐이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1860년대와 1920년대에 대한 새로운 정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바탕적 기저에는 주체사관에 의한 歷史의 본질과 시기구분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깔려 있다. 주체사관에 의한 근, 현대사 시기구분은 주체사상의 근원적 특질인 이른바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수령중심의 현대사관’을 그대로 지니게 된다. 이러한 主體의 근, 현대사 시기구분은 北韓의 80년대 역사책인 《조선전사》, 《근대조선력사》, 《현대조선력사》, 《조선통사》3차 개정본에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시기구분, 수령중심의 현대사관이란 주체사관의 특질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평가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主體思想을 유물사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재정리와 강조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유물사관과도 배치되는 ‘관념론’ 또는 ‘김일성 우상화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北韓은 ‘주체의 법칙성’에 따른 시기구분으로 해서, 식민지시기와 해방 이후 남북의 차이 등 우리 근현대사의 상이한 객관적 조건들을 주동적 입장에서 체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엇갈림을 적실하게 논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主體思想 및 主體史觀과,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자본주의 관계의 발생 발전

우리나라 중세사회의 태내에서 자주적 근대화의 경향을 배태하였는가는 봉건말기 우리나라 역사의 내재적 법칙성을 밝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적 정체론과 그를 빌미잡은 침략성을 규명하는 전제가 된다.

해방 직후 北韓 歷史學界의 봉건 말기에 대한 인식은 당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18) 학계소식, 과학원 역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에서 학술토론회 진행, 《력》63년 4호.

19) 주체사관에 의한 시기구분론의 자세한 변화는 도진순의 앞의 글 참고.

시대 정채론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50년대 후반 최병무등은 우리나라 부르주아 민족형성의 물질 토대의 형성을 논의하면서,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sup>20)</sup>

50년대 후반 학계의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았던 이러한 問題提起는 60년대에 들어와 歷史學界의 전반적 동의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주적 근대사 주요한 사업으로 등장하였다. 61년《조선근대혁명운동사》, 62년《조선통사》개정판 하권은 이미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에 대한 대체의 윤곽을 신속하게 정리하였으며, 歷史學界의 기관지격인 《역사과학》은 62년 3호의 권두언〈맑스-레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역사과학의 당성의 원칙을 고수하자〉에서 이 문제의 체계화를 歷史學界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윤곽설성과 問題提起에 의한 60년대 초반의 연구성과는 63년《우리나라 봉건말기 경제형편》으로 중간 결산되는 한편, 《역사과학》등을 통해서 연구가 더욱 확대 심화되어 갔다.<sup>21)</sup>

이러한 研究의 확대 및 심화과정은 조선후기에 대한 정채론적 인식을 결정적으로 퇴치시키고 우리나라 중세말기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을 풍부하게 논증하였으나, 논의의 엄밀화의 과정에서 쟁점이 부각되어 상호의 討論과 論爭을 야기하였다. 드디어 64년 4월 28일 과학원 歷史연구소에서는 장국종의 발제에 의한 ‘우리나라 봉건말기 자본주의 발생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sup>22)</sup>이어서 7월에는 경제연구소에서〈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생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9월

---

20) 최병무, 〈리조 封建經濟의 태내에서 발생한 약간의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조선에 있어서 부르주아 민족형성에 관한 토론집》

21) 이 問題에 관한 60년대초반 北韓 學界의 研究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동호, 우리나라 광업에서 자본주의의 발생(18세기후반기~19세기전반기) (討論), 《경》62년 6호; 허종호, 18세기말 19세기초 병작제도의 발전, 《력》63년 2,3호; 홍희유, 19세기 개천(평안남도) 지방 야철 수공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력》63년 6호; 박영호, 남청유기 마누팍두라에 대하여, 《경》64년 1호; 장국종, 조선봉건말기 어업경영형태, 《력》64년 3호; 허종호, 우리나라에서 화폐지대의 발생에 대하여, 《력》64년 3호; 박동근, 19세기말 갑산 동점의 경제적구조(연구자료), 《경》64년 3호.

30일에는 역사연구소에서는 다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sup>23)</sup>

討論의 구도는 역사연구소의 김석형 홍희유 장국종 허중호 등과 경제연구소의 전석담을 양측으로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논점은 자본주의 요소 및 맹아에 대한 개념규정과 鑛業 漁業 農業등 각분야에서 자본주의 발생의 시기와 근거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개념규정에 관한 논의는 ‘봉건경제의 해체로 인한 자본주의적 관계의 천제형성-단순협업-공장제 수공업-공장제 기계공업’등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단계에서 자본주의적 ‘요소’ 및 ‘맹아’는 어디에 어떻게 해당하는가 라는 문제였다. 장국종은 자본주의적 요소는 자본주의적 맹아와 같은 것이라고 보고, 이를 단순협업의 단계로 규정하였다(자본주의적 요소=맹아=단순협업) 장국종의 이러한 개념규정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역사적 전제’를 곧바로 ‘자본주의적 맹아’로 보는 혼돈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비판이 되었으나, ‘요소’를 ‘맹아’와 동일시한 것은 論難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討論의 결과 ‘자본주의 발생의 역사적 전제=자본주의적 요소’, ‘자본주의 맹아=단순협업’으로 정리되었다.

다음 각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發生問題를 보면, 선진적 부문인 鑛業에 대해서는 17세기 설점수세(設店收稅)에서 부터 자본주의적 관계로 보는 전석담과 18세기 중엽의 잠채(潛採)부터 자본주의로 보는 김석형 홍희유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농업에서는 18세기 農業에서도 자본주의가 진척되었다고 보는 전석담과 19세기초까지 미작시대는 자본주의의 전제조건과 요소들이 나타났지만, 자본주의적관계(맹아) 그 자체는 아니라는 허중호와 대립되었다. 농촌의 미작시대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에 대한 허중호와 전석담의 대립은 고용노동과 도지(賭支)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의되었다.<sup>24)</sup>

22) 장국종,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요소 발생에 대한 몇가지 問題(討論), 《력》, 64년 4호 ; 박영해, 우리나라 봉건 말기 자본주의 발생에 관한 토론회, 《력》, 64년 6호.

23) 學界消息,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생에 대한 학술 토론회, 《경》, 64년 3호 ; 學界消息, 우리나라 봉건말기 자본주의 발생 문제에 관한 토론회, 《력》, 64년 6호.



討論과 論爭을 통하여 北韓의 歷史學界는 기본적으로 김석형 홍희유 허종호의 설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문제에 대한 전반적 합의가 도출되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7세기 후반기에 봉건사회가 분해되기 시작하여 자본주의적 生産의 歷史的 전제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2)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을 선도하는 광업부문에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3) 19세기에 이르면 일부 산업이 단순협업의 단계에서 공장제 수공업으로 이행하여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Uclad로 성립되었다. 4) 19세기말에 이르면 일부 부문에서 공장제 수공업이 기계제 생산으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60년대의 結論은 그 후로도 기본적으로 관철된다. 北韓 歷史學界는 60년대의 결론에 바탕하여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발전을 집단적으로 연구 정리하였는데, 그 대표적 저작이 70년대초의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전석담 허종호 홍희유, 1970),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김광진 정영술 손전후, 1973)이다.

北韓 歷史學界에서 우리나라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발전에 대한 이러한 정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보편적 법칙’이 우리역사에서도 내제적 합법칙성으로 관철된다고 보는 점, 2)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시기적으로는 보다 후진적이라는 것, 3) 자본주의의 두가지 길 중아래로부터의 길(소농민-매뉴팩처-부르주아지)과 위로부터의 길(지주 상인-부르주아지)-위로부터의 길을 주된 경향으로 본다. 이점은 이 문제에 관한 남한 학계의 주요 연구와도 예각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된다.

北韓 歷史學界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발전에 대한 이러한 정리와 평가는 主體史觀이 전면화되는 80년대에도 기본적으로 견지된다. 그러나 80년대에는 ‘위로부터의 자본주의화’인 우리나라의 경우를 서구와 비교하여 세계사의 보편적 경향으로 평가하고 있다.<sup>24)</sup>한 80년대에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을 보다 양적으로 풍부하게, 그리고 보다

24) 허종호, 18세기말~19세기초의 농업고용노동의 성격(討論), 《력》, 64년 6호; 전석담, 허종호 《조선 봉건말기 소작제 연구》(서평), 《력》, 66년 1호; 허종호, 도지에 관한 몇가지 문제, 《력》, 66년 6호. 물론 허종호도 도시주변의 일부 상업적 농업에서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시기를 앞당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6)</sup>

#### 4. 부르조아 民族運動의 發生 發展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발전이 근대사회 여명기에서 하부구조의 물질적 법칙성을 규명하는 문제라면, 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부르조아 民族運動의 발생 발전은 상부구조인 정치세력의 역량관계와 동향을 밝히는 문제이다.

北韓 歷史學界에서 우리나라 부르조아 민족운동을 정리하는데 중심고리가 된 것은 1884년의 갑신정변이었다. 해방 직후 北韓 學界의 甲申政變에 대한 평가는 49년 《조선민조해방투쟁사》에서 류문화(柳文華)가 집필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근 甲申政變을 “封建國家를 개조하여 근대적인 새로운 國家를 건설하려고 한 조선에서의 최초의 改革運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총괄적으로는 “일제 침략자의 조종하에서 진행되어, 객관적으로는 일본자본주의의 조선침략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정리하였다. 즉 개화파들은 주관적으로 日本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지만, 객관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에 이용되어 그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방향으로 복무하였다는 것이다. 류 문화는 甲申政變이 지니는 결과적 식민성을 비판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발생의 원인을 외인(外因)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당시 조선에서는 아직 자본가계급이 형성되지 않아서 甲申政變은 “외국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은” 몇사람의 선진분자가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였다.

甲申政變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이는 이나영이었다. 그는 55년말 56년초에〈1884년(甲申)政變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甲申정변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인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sup>27)</sup> 甲申政變에 대한 이나영의 새로운 정리가 제

---

25) 허종호, 리조 封建社會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문제에 대하여, 《력》, 88년 1호, 2호.

26) 자본주의 발생 발전에 대한 80년대 주요한 연구성과는 아래와 같다. 홍희유, 18세기 이후 점촌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력》, 81년 4호; 홍희유, 17세기이후 인삼재배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삼포경영, 《력》86년 3호; 장정옥, 17~18세기 서민지주 장성에 의한 지배계급 신분층의 변화, 《력》86년 3호; 홍희유, 17세기이후 담배지배업의 급속한 그 상품화에 대하여, 《력》88년 3호.

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58년 3월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演說에서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할만한 언급을 하였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부르조아 혁명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부르조아 혁명이 없는가, 中國에는 강유웨이나 양개초같은 부르조아 혁명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같은 사람들이 없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 하였다. 그는 김옥균이 친일파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좀더연구하고 토론해야할 여지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유보하면서도, 우리나라에도 부르조아 혁명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김옥균을 들 수 있다”고 표명하였다.

甲申政變에 대한 이나영의 問題提起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58년 《조선민족해방 투쟁사》에 정연하게 반영되었다. 그는 甲申政變이 대중투쟁에서 유리되고, 日本에 의존하였으며, 상황인식과 전술상의 미비등 3가지 요인으로 해서 실패하였으며, 불충분하고 미숙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甲申政變은 위로부터의 미숙한 改革運動이었지만, 당시 뒤떨어진 社會經濟狀態에서 처음으로 封建制度 그 자체를 반대하고 近代國家로 改革하려는 긍정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나영의 이러한 정리는 58년 9월 발행된 《朝鮮通史》하권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었다.

甲申政變이 우리나라 최초의 반공건 부르조아 民族運動이란 합의가 도출되고 난후 59년에 들어와 問題는 개화파와 甲申政變의 대외적인 자주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59년 7월 ‘조선에서 부르조아 民族運動에 관한 科學 討論會’가 개최되었다.<sup>28)</sup>

討論會에서는 研究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실장인 전석담이 기초발제를하고 김영숙 엄창종 김석형 등이 討論에 참여하였다. 전석담은 기초발제에서 ‘開花思想은 實學思想을 계승하였으며 일정한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당시에 있어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思想”이었으며, 甲申政變 또한 “미숙하나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부르조아 개혁의 시도였으며 바로 여기에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고주장하였다. 개화파들이 계급적 한계가 있었으며 인민대중에 의거하지 않고 일본세력에 의거한 것은

27) 이나영,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한 연구, 《력》, 55년 6호, 57년 1호.

28) 리중현, 조선에서의 부르조아 민족운동에 관한 과학 토론회(과, 59년4호; 학계소식, 부르조아 민족운동에 관한 과학 토론회, 《력》, 59년 4호.

착오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며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난 후 전석담은 “개화파들이 어느 정도 진보적이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일제의 앞잡이로 전락되었으니 만큼 그들을 선진적이며 애국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討論자들은 각자의 견해와 그 논거를 대담하게 내놓을 것을 제의하였다.

討論會에서는 대체적으로 “개화파들이 사상의식에서와 정치적 활동에서 적지 않은 부족점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사회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순응하며 우리나라의 낡은 封建制度를 개변하고 나라의 부강을 도모함으로써 위험에 직면한 조국의 自主獨立을 쟁취하려고 하였으니 만큼 애국적이며 진보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50년대 후반 부르쥬아 民族運動과 甲申政變에 대한 긍정적 정리는 60년대에 들어와 보다 확대되었다. 《역사과학》61년 1호의 권두언〈우리나라 역사를 조선인민의 립장에서 노동계급의 립장에서 연구 분석하자〉에서는 역사정리에서 民族주체성의 관점을 제기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甲申政變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해 9월에 발간된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도 반영되어 甲申政變을 ‘반봉건적 성격의 근대성’과 아울러 ‘반침략적 자주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또한《역사과학》62년 3호의 권두언〈맑스-레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역사과학의 당성의 원칙을 고수하자〉는 歷史研究에서 계급성과 당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유물변증법에 입각하여 우리역사를 ‘내적 모순’에 따라 체계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권두언은 이러한 방법론적 원칙에 따라 歷史學界의 제1의 과제로 일제식민사가들에 의한 “외인론”을 완전하게 극복하고, 내재적 발전과정으로서 조선사를 체계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甲申政變을 그 사건자체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민족운동의 내재적 발전과 관련하여 개념적으로 체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과학원 역사연구소는 62년 10월, 63년 2월과 3월, 세번에 걸쳐 ‘부르쥬아 民族運動에 관한 討論會’를 개최하였다.<sup>29)</sup>

討論會에는 김영숙 최기환 김경수 오길보 이종현 전석담 등이 참여하였으며, 토론의

29) 우리나라에서 부르쥬아 民族運動의 발생에 관한 學術 討論會, 《과》, 63년 2호; 우리나라에서 부르쥬아 民族運動의 발생에 관한 學術 討論會, 《력》, 63년 4호.

주된 초점은 부르쥬아 民族運動에 대한 개념규정과 시점에 관한 것이었다. 討論을 선도한 김영숙은 부르쥬아 民族運動의 본질적 요구는 “부르쥬아적 商品生産과 經濟發展의 질곡으로 되고 있는 령토의 분열과 언어의 불통일을 청산하고 통일된 民族市場 및 民族國家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구라파와 우리나라 역사의 구체적인 특성과 차이가 해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분권적 영주제인 서구에서 近代 民族運動이 ‘영토의 분산성과 언어의 불통일을 청산하고 부르쥬아 民族國家를 수립하는 문제’였다면, 집권적 봉건제였던 우리나라의 경우 民族運動은 “외래 자본주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영숙의 개념규정에 대체로 동의하여, 우리나라 民族運動의 개념을 김영숙이 제안한 “자본주의가 대두하는 시기 반제반봉건 과업을 기본으로 하는 부르쥬아 民族國家의 수립을 위한 투쟁”이라는데 합의하였다.

討論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부르쥬아 民族運動의 발생시점이었다. 김영숙은 60년대에 開花思想이 형성되는 등 일련의 새로운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부르쥬아 民族運動의 시점은 “개화파의 정치적 중심이 형성되고 목적의식적 활동이 시작된 70년대”로 제시하였다.

김영숙의 70년대시점설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오길보 전석담 등이 동의하였다. 오길보는 부르쥬아 民族運動은 1) 부르쥬아 사상의 기치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2) 부르쥬아 주권수립을 위한 투쟁이며, 3) 이것은 반제반봉건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세가지 기본징표를 제시하고, 70년대에 와서 이 세가지 징표들이 운동에 내포되기 시작하였다면서 70년대 시점설을 지지하였다. 그는 60년대에도 새로운 사상과 정치적 활동들이 있었으나, 자본주의를 지향한 사상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반침략 투쟁은 반봉건투쟁과 결합되지 못하여, 부르쥬아 民族運動의 시점이 되지는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최기환은 60년대의 반외세투쟁에 주목하여 그것의 지도역량이 부르쥬아가 아니라도 객관적 효과는 自主的 民族市場 수호에 유익한 것이었고 하면서, 60년대를

부르쥬아 民族運動의 시점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그 근거로서 60년대 국내의 자본주의적 관계가 이미 매뉴팩처 단계였고 62년 전국적인 농민폭동은 民族運動의 경제적 기초가 성숙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그러한 시기의 우리나라 반침략투쟁은 민족적 통일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위정척사사상의 변화를 비롯하여 뚜렷한 진전이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최기환은 이처럼 60년대를 부르쥬아 民族運動의 시점으로 보고, 70년대는 民族運動이 발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귀결지었다. 이러한 최기환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소의 유보조항을 표명하면서도 김경수 이종훈등이 동의하였다.

民族運動의 시점에 대한 이러한 대립은 토론회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sup>30)</sup> 그 후 조정되었다. 그 결과는 60년대의 일련의 새로운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민족운동의 시점으로는 70년대로 설정되었다.<sup>31)</sup>

60년대 초반 民族運動으로서 개화파와 甲申政變에 대한 이러한 研究와 整理는 64년의 논문집 《김옥균》으로 정리 집약되었다. 그러나 70년대 공동저작인 《조선에서의 부르쥬아 혁명운동》에 이르면, 《김옥균》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두가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甲申政變을 김옥균 개인중심으로 파악한 방법론에 대한 반성이며, 다른 하나는 甲申政變의 성격규정에 관한 것이다. 《부르쥬아 혁명운동》에서는 甲申政變을 단순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부르쥬아혁명”으로 규정하며, 그 근거로서 “혁명에서 중요한 문제인 주권의 문제를 봉건통치자와의 타협에 의거하지 않고 폭력적인 武裝政變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70년대에는 김옥균 개인을 위주로하는 개화파와 甲申政變에 대한 과도한 평가의 부담을 지니게 되었다.

개화파와 甲申政變에 대한 이러한 기조는 개화파의 이러저러한 제한성을 정리하고 있는 80년대 초의 《조선전사》하권에 오면,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다시 “위로부터의 부르쥬아 상층 개혁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30) 김영숙, 우리나라에서 부르쥬아 민족운동의 발생에 대하여(討論), 《력》, 63년 4호; 최기환, 우리나라에서 부르쥬아 民族運動의 발달에 대하여(討論), 《력》, 63년 5호.

31) 역사연구소 근세사 연구실, 개화파의 형성(강좌), 《력》, 64년 3호.

甲申政變에 대한 새로운 정리는 같은 계열의 民族運動인 甲午改革 만민공동회 활동 애국계몽운동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리를 하게 되었다.<sup>32)</sup> 이에 의하면 甲申政變에서 ‘봉건귀족 양반출신의 선각자’에서 출발한 부르조아 民族運動이 甲午改革에 이르면 ‘혁식관료’들의 民族運動으로 확대되며, 만민공동회에 이르러서는 관료들의 운동이 아닌 ‘민권운동’의 단계로 넘어가 소부르조아지 지식인들이 주도하게 되며, 이때부터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과 합류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리는 甲申政變에서 3·1운동에 이르는 우리나라 부르조아 民族運動의 발생 발전 종말에 대한 北韓 歷史學계의 입장을 골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부르조아 民族運動의 발생 발전에 대한 北韓 學界의 정리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발전에 대한 정리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학계의 정리는 1) 우리나라에서도 봉건제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정치적 上部構造에서도 관철된다고 하는 점, 2) 그것이 서구보다 후진적이며, 민족부르조아지가 취약한 가운데 수행되는 위로 부터의 코스라는 점, 3) 반침략 반봉건 운동의 주류가 민중이라도 근대화의 주류는 취약하지만 부르조아라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 5. 甲午農民戰爭

부르조아 혁명 또는 근대화운동에서 農民問題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농민을 비롯한 民衆運動은 반봉건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근대화의 기초와 전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화의 위협이 박두하는 한편 국내의 부르조아지가 취약한 경우, 농민들의 반침략반봉건 운동은 다대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민족운동의 발생 발전기에 획기적인 農民運動은 물론 甲午農民戰爭이다.

北韓에서는 50년대 후반 이청원 안용태 장문선등이 甲午農民運動을 연구 정리하여

32) 리종현, <우리나라에서 부르조아 改革運動의 발생 발전에 대한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력》80년 4호, 참고로 甲午改革에 대한 北韓의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탁병채, 甲午改革의 전제조건, 《력》63년 6호; 박인근, 甲午改革의 전제조건에 대한 몇가지 의견, 《력》64년 3호; 리종현, 우리나라에서 1894년(甲午)부르조아개혁, 《력》79년 1,2호; 윤종규, 1894년(甲午)개혁 때 國家政治機構의 개편, 88년 3호.

오다, 이나영이 《민족해방투쟁사》와 58년 《조선통사》하권에 대표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이나영은 甲午農民戰爭이 東學을 외피로 하여 일어났으며, 農民戰爭중 설치한 집강소는 인민정권의 맹아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이나영의 정리에 대하여 59년 오길보는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sup>33)</sup> 그가 문제삼은 것은 農民戰爭의 東學과의 관련성과 집강소의 성격, 두가지가 중심이었다. 그는 “東學亂”에 대해 “甲午農民戰爭” 또는 “1894년 農民戰爭”등 정당한명칭이 통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東學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나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東學의 ‘종교적 외피론’을 사실적 근거없는 것이며, 리론을 교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비판하였다. 그는 甲午農民戰爭에서 東學은 하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집강소에 대해서도 ‘인민정권의 맹아’로 언급한 이나영을 비판하고 농민들의 자치기관으로 정리하였다.

오길보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甲午農民戰爭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이에 따라 歷史연구소는 59년 8월 29일 전석담 오길보 이나영 김사역 김증식등이 참여하는 討論會를 개최하였다.<sup>34)</sup>討論會의 중심주제는 역시 甲午農民戰爭과 東學과의 관계, 집강소의 성격이었다. 그런데 집강소는 人民政權의 맹아가 아닌 地方自治機關으로 쉽게 정리되어, 토론회의 핵심주제는 역시 東學과의 관련성 문제였다.

甲午農民戰爭과 東學과의 관련성 문제는 1)종교적 외피론인가 아닌가 2)심례집회등 교조신원운동은 甲午農民戰爭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3)동학의 하층부는 農民戰爭에 얼마나 참가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4)전봉준은 同學 집주인가 아닌가 등의 4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종교적 외피론에 대해서 이나영은 동학의 역할과 의의를 상당히 인정하여, 서구

33) 오길보, 甲午農民戰爭과 東學, 《59년 3호.

34) 討論, 甲午農民戰爭과 東學에 대하여-1)오길보, 2)김사역, 3)김증식-, 《력》, 59년 5호; 학계소식, 甲午農民戰爭에 관한 科學 討論會, 《력》, 59년 5호; 學界消息, 1894년 農民戰爭에 관한 科學 討論會, 《과》, 59년 5호.



와는 다르지만 甲午農民戰爭에서 이른바 ‘종교적 외피론’을 주장하였던 반면,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이며, 당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달로 전국적으로 경제적 연계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이전에 이미 국가주도의 전국적인 반침략투쟁의 傳統이 있었다는 것 등등을 근거로 하여,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 달리 종교없이도 전국적 반침략 반봉건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종교적 외피론을 부정하였다.

이처럼 東學을 農民戰爭에서 “종교적 외피”로 규정하는 것에는 대부분 반대하였지만, 그러한 전체아래 농민전쟁에서 동학의 역할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였다. 오길보는 동학의 역할과 의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고, 전석담, 김사익 등은 ‘종교적 의미’를 부정한다고 해서 東學의 의의를 지나치게 過少評價해서는 안 된다고 主張하였다. 토론자의 대다수는 동학의 부분적 役割을 인정하였다.

그것은 위의 논점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조신원운동은 갑오농민전쟁과 關聯은 있지만 그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조신원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이미 東學 상층부는 農民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였다. 2) 東學 하층부는 농민적 이해관계에 의해 農民戰爭에 廣範圍하게 참여하였다. 4) 전봉준이 접주이나 아니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봉준은 東學보다는 農民들을 위해서 봉기를 일으켰으며, 이를 위해 東學의 組織을 이용하였다.

59년 討論會에서 農民戰爭의 동학과 關聯性과 집강소 문제는 처리되었지만, 東學思想과 農民戰爭의 性格 問題는 분명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의 整理를 참작하여 그 結論을 추론할 수 있다.<sup>35)</sup> 東學思想에 대한 결론은 1) 동학은 반침략 반봉건의 애국적 性格을 지닌 民族宗教이다. 2) 그러나 革命이 아닌 倫理道德으로 구원을 하려 했다는 점과, 환상적이며 미신적 요소가 강한 종교였다는 점에서 반침략 반봉건의 指導理念으로는 본질적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3) 그러나 당시 반침략 반봉건 運動을 추동하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정리하였다.

35) 오길보, 1894~1895년(갑오) 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력》, 64년 4호; 80년대의 대표적인 참고도서로는 82년의 《조선전사》 13권과 86년의 최봉익, 《조선철학사개요》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甲午農民戰爭의 性格에 대해서는 ‘반침략 반봉건 鬪爭’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부르쥬아 민족운동’으로 보는 데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다. 討論에서 김종식은 農民戰爭에서 “부르쥬아혁명”의 측면을 말해주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예로서 “평균분작”을 부르쥬아적 토지개혁가 유사한 것으로 把握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자들은 甲午農民戰爭과 집강소 활동에서 제기된 요구와 개혁중 근대적인 요소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수준에는 여러모로 未洽하다는데 동감하였다. 따라서 甲午農民戰爭이 부르쥬아 民族運動(1884년 甲申政變)에 影響을 받고 또한 부르쥬아 民族運動(1894년 갑오개혁)을 추동하는 다대한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부르쥬아 민족운동으로는 把握할 수 없음을 대체로 인정한 듯하다.

50년대 후반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이러한 정리는 기본적으로 그후에도 관철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주체사관에 의한 80년대의 역사서인 《조선전사》, 《근대조선력사》, 《조선통사》 3차 개정판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5. 민족부르쥬아지와 민족개량주의

北韓에서는 1950년대 後半에 민족부르쥬아지에 대해서, 1960년대 후반에는 민족개량주의에 관한 論爭이 있었다. 이 논쟁은 北韓에서의 社會主義 건설, 남한과의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현실적 실천적 의미도 함의되어 있었지만, 논쟁의 중심주제는 어디까지나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의 이론적 정리에 있었다.<sup>36)</sup>

민족부르쥬아지에 대한 논쟁은 56년 3차당대회를 전후한 사상에서의 주체확립과 교조주의퇴치, 민족부르쥬아지 정책의 현실적 완결을 정치사상적 배경으로 하면서, 사학계내에서는 과학원 후보원사 이청원의 56년도 저작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 리

---

36) 도진순, 북한 학계의 민족부르쥬아지와 민족개량주의 논쟁, 《역사비평》, 88년 가을호.

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56년 10월 30일 과학원 歷史연구소에서는 이 책에 대하여 합평회를 개최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토론하였다.<sup>37)</sup>

이어서 이청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프로레타리아트의 형성과 헤게모니수립의 시기문제, 신간회에 대한 평가, 민족부르조아에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바로 이 민족부르조아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비판을 한 이가 김상룡이었다.<sup>38)</sup>

이청원은 민족부르조아지 상층을 예속부르조아지로 보고, 이들의 고립화를 통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가 수립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상룡은 예속부르조아지와 민족부르조아지는 혁명의 대상과 동력으로 엄격하게 분리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는 민족부르조아지의 고립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수립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고립화는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기 때문에 예속부르조아지는 타도대상, 민족부르조아지는 동맹대상이지, 둘다 고립화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철학자 황장영은 김상룡의 의견에 대하여 대체로 동감하면서도 몇가지 이견을 제시하였다.<sup>39)</sup>

그는 민족부르조아지와 예속부르조아지를 혁명의 대상과 동력으로서 엄격히 분리하는 김상룡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였다. 그러나 고립화정책을 “혁명의 일정단계에서 변하지 않는 전략”으로 보는 김상룡의 견해에 대하여, 그는 전략적인 타도대상과 동맹대상에도 “전술적”으로 고립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민족부르조아지에 대하여 “전략적 동맹”과 아울러 “전술적 고립화”를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 본 세사람의 견해를 간단히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7) 이청원서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대한합평회, 《력》, 57년 1호.

38) 김상룡,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과 민족부르조아지에 대한 문제, 《력》57년2호.

39) 황장영, 민족 부르조아지의 개념에 관한 몇가지 문제, 《력》57년 4호.

〈민족부르조아지에 관한 논쟁 개요〉

논자 항목	부르조아지의 개념과 구분	민족부르조아지 정책	예속부르조아지 정책
이청원	민족부르조아지에 예속부르조아지 포함	전략적 고립화 (전술적 동맹)	전략적 고립화
김상룡	민족부르조아지와 예속부르조아지 구별	전략적 동맹 (고립화 아님)	타도대상 (고립화 아님)
황장엽	민속부르조아지와 예속부르조아지 구별	전략적 동맹 (일부; 전술적 고립화)	타도대상 (일부; 전술적 고립화)

이러한 세사람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北韓의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는 57년 10월 16일 이나영, 이능식, 황장엽, 전석담, 이종현, 최태진 등이 모여 科學討論會<sup>40)</sup>를 가졌다.

여기서 전면적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했지만, 1)민족부르조아지와 예속부르조아지는 범주적으로 엄격히 분리된다 2)민족부르조아지는 동맹의 대상이고, 예속부르조아지는 타도의 대상이다 3)민족부르조아지는 혁명에 양면성을 지니며, 일면 투쟁하면서 일면 동맹한다 등은 대체로 합의되었다. 이것은 이청원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김상룡, 특히 황장엽의 의견을 중심으로 귀결된 것이었다.

한편, 민족개량주의에 관한 논쟁은 北韓에서 政治 군사적, 그리고 사상 문화적 긴장기인 6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60년대 北韓은 이른바 미국의 ‘군사적 공세’에 대응하여 7개년 經濟計劃을 3년간 연기하면서 國防建設을 추진하는 한편, ‘사상 문화적 공세’에 대응하여 主體思想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강화하였다. 이와 아울러 북한은 ‘미-일-한’의 삼각협력체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정세와, 이와 관련된 남한 내부의 새로운 변화, 즉 경제개발과 관변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예외 주목하였다. 60년대의 이러한 韓半島의 對外情勢와 남북간의 새로운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역사학계에서는 민족개량주의 논쟁이 일어났다.

40)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있어서 민족부르조아지에 관한 과학토론회, 《력》57년 6호.

당시까지 북한 사학계에서는 민족개량주의 계급적 기초에 대하여 상반된 두 입장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하나는 예속자본으로 보는 것이었다. 민족개량주의의 계급적 기초를 예속자본으로 보는 것으로는 58년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와 역사연구소의 《조선통사》가 대표적이었으며, 민족부르조아지 상층이라고 보는 것으로는 61년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장만은 66년《력사과학》3호에〈1920년대 민족개량주의의 계급적 기초 해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를 발표하여, 민족부르조아지 상층을 그 계급적 기초로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김희일은 바로 다음호(3호)에〈민족개량주의의 계급적 기초는 예속 부르조아지이다〉라는 논문으로 이를 반박하였다.

두사람의 논쟁점은 민족주의와 민족개량주의의 구분과 개념규정, 민족개량주의의 물질 계급적 토대, 민족개량주의에 대한 정책 등이었다. 3가지 문제에 대한 허장만과 김희일의 논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개량주의에 대한 논쟁 개요〉

항목 논자	허 장 만	김 희 일
구 분	민족주의에 민족개량주의 포함	민족주의와 민족개량주의 구별
물질 토대 (민족개량주의/민족주의)	민족부르조아지 상층 민족부르조아지 중·하층	예속자본 민족자본
정 책 (민족개량주의/민족주의)	전략적 고립화 전략적 동맹	타도대상 전략적 동맹(전술적 고립화)

北韓의에서 민족개량주의 논쟁은 주로 김희일의 논리를 기본으로 하여 정리되었음을 1983년의《조선전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전사》에서는 민족개량주의의 대두 원인을 자산계급의 정치적 동요라는 계급적 본성과 일제의 매수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민족개량주의의 계급적 토대를 예속자본가로 규정하고 있다.

## 맺 음 말

이상 北韓 역사학계의 흐름과 저작을 3단계로 개관하고 난 후, 근대사 연구의 주요 쟁점 5가지를 분석적으로 정리하였다. 근대사 연구의 쟁점들은 대체로 반중파투쟁을 전후한 50년대의 후반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60년대 전반기에 대체로 해결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근대사상(像)이 내용상 정리되는 시기는 주로 '50년대 후반~60년대 후반'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역사학계에서 해방 이후 韓國戰爭 시기의 1단계가 유물사관을 표방하지만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던 시기라면, 50년대 후반~60년대 후반의 2단계는 1단계의 연구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통일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그후 이 시기는 남아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주체사관에 의해 전반적으로 재구성한 시기라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 역사학계의 근대사 쟁점 5가지는 실상 우리의 남한학계에도 예각적인 쟁점이 되는 것들이다. 여기서는 우리 학계와의 개괄적 연관성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시대구분 문제는 우리 학계에서 60년대 후반 광범위하게 논의된 적이 있지만 70년대 이후 방치된 감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간의 새로운 문제제기와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여, 이제는 역사의 개념화작업과 아울러 시기구분 논의의 재개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학계에서는 두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발생을 “고전적, 아래로부터의 코스”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비한다고 우리나라 봉건말기에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장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두가지 견해는 모두 “위로부터의 자본주의적 관계”를 주류적 경향으로 보는 북한 학계의 통설적인 견해는 차이가 있다.

甲申政變과 부르조아 民族運動에 대해서도 그것을 “위로부터의 개혁”임을 같이 인

정하면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위로 부터의 부르조아 民族運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사실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평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農民戰爭에 대해서는 남북이 대체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農民戰爭의 총괄적 성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학계의 비중있는 견해는 “아래로부터의 부르조아 운동”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과 “반침략 반봉건운동일 뿐만아니라 반자본주의적 민중운동”으로 평가하는 조류도 나뉘지며, 북한의 역사학계는 농민전쟁이 부르조아 민족운동을 추동한 기본동력이지만, 그 자체의 기본성격은 “반침략 반봉건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미묘한 것이지만, 결코 사소한 차이는 아니다. 農民運動은 그 총괄적 성격규정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남북 학계 사이에서 토론될 수 있는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민족부르조아지와 민족개량주의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에서 민족부르조아지의 역할과 이들과의 동맹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과 노동계급의 해계 모니와 이들의 고립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 남 북의 근대사 인식을 그 차이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그러나 북한학계의 근대사 연구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우리 학계에서도 매우 예각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문제의식의 깔려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이야말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공통의 동력이 될 것이다. 근대사 연구에서 견해의 적지않은 차이는 바로 남 북 역사학계의 적지 않은 토론과 상호비평의 출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분단 현실이 역사의 분단을 초래하였다면, 분단 역사학의 극복과 합일의 과정은 분단 현실의 지양과 통일에의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北韓歷史學界의 近代史 認識

---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1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5호 ☎ 720-2141, 2425

간행책임 : 보좌관 사순문

인쇄소 : 대우인쇄(주)

---

<非 賣 品>

